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변경

도교육청, 입법예고 등 거쳐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60%가 '학생교육문화관' 선택
역할 재정비 통해 학생 교육기관 정체성 확립 나서

전북도교육청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변경,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을 위해 전주교육문화회관이 도내 6개 교육문화회관을 대표해 학생회의 의장, 도의회 교육위원, 학부모 등으로 교육문화회관 역할·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의 회를 갖고, 교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60%가 '학생교육문화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교육문화관'으로의 명칭 변경과 함께 역할 재정비를 통해 학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수상안전교육, 예술문화교육·사회적배려 학생 맞춤형교육 등 학생 교육을 강화하고 더불어,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학생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바뀐 명칭에 걸맞게 학생교육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8일 전북대학교에서 '2주기 수의학교육 평가인증 성과분석 및 인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전북대 수의대, 수의학교육 6년 완전인증

1주기에 이어 2주기 인증서 최고 수준 교육환경 입증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상열)이 국내 수의학교육인증 주관기관인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부터 2주기 수의학교육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6년 완전인증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주기에 이어 완전인증을 받은 바 있는 전북대 수의대는 이번 2주기 완전인증을 통해 학생 교육 여건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수의학교육평가인증은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심사위원단의 인증평가 과정을 통하여 수의학을 전공한 졸업생이 전문적인 수의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충실한 교육 여건을 갖추어 실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전북대 수의대는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의 보고서 평가와 면밀한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해 기관의 효율성과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자원 등 5개 영역에서 최고 등급

을 받았다.

한편 전북대 수의대는 28일 인증서 전달식에서 박상열 수의대학장이 (사)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박상열 수의대학장은 "1주기에 이어 2주기 수의학교육 완전인증이라는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수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대구보건대 유연 학사제도 성과 공유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7일 AI뉴테크전략실에서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와 유연 학사제도 성과 공유 및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임택택 교육과정혁신센터장, 김수현 VISION역량학생성공센터장, 황성태 교육과정혁신 팀장과, 대구보건대학교에서는 김정기 교무처장, 김길수 교무지원팀장 등이 참석, 다변화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적합도 높은 교육과정 운영체계 구축과 교육혁신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양 대학은 유연 학사제도 도입을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 등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개방·공유·협력력을 통한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분석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는 28일 총무식을 가진 가운데, 우병훈 총장이 송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 산업발전 인재 양성 요람 위상 공고히"

전주비전대 총무식
우병훈 총장은 송년사를 통해 "한해 동안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전주비전대학교의 위상을 펼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2024년에는 전라북도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의 위상임을 공고히 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자율전공학부 2학기 비전 심화 워크숍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최근 종합교육관 2층 대강의실에서 2023학년도 2학기 비전 심화 워크숍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겹잡컨설팅 박규현 대표를 초청해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그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을 통해 자율전공학부 재학생들은 인구구조·기술·가치관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진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배움으로써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오후 행사에서는 재학생들이 전공 배정 학과(부) 경험담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학년 1학기 종강 후 전공 선택 학생은 전공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전공 선택 설문지 작성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립군산대학교 자율전공학부는 2023년 신설된 학부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자기 설계 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 개인별 전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본 학부에 소속되어 다양한 계열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학부 주관 전공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전공을 찾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군산=김필곤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7일 해양과학대학 1호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7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산업 선도 리더급 인재 양성

국립군산대, 올 제7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수료식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지난 27일 해양과학대학 1호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7기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은 국립군산대학교가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위탁 운영하는 교육으로서, 수산업을 선도해 나갈 리더급 인재 양성을 위한 과정이다.

19명의 수료생들은 올해 9월 21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75시간의 집중 강의, 21시간의 현장 견학 및 토론, 1박 2일의 국내 연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선진화된 수산경영 철학을 확립하고, 전문수산경영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문화된 지식과 소양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산=김필곤 기자

2024 원광언론인상 수상자 선정

소문관 전라일보 편집국장 · 이호준 경기일보 경제부장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는 언론문화 창달과 대학의 명예를 빛낸 동문 언론인에게 수여하는 '2024년 원광언론인상' 수상자로 소문관 전라일보 편집국장과 이호준 경기일보 경제부장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원광언론인상은 원광대학교 출신 동문 언론인 모임인 원언회(회장 박팔령, 문화일보)가 원광언론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원광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문관 편집국장은 신문방송학과 졸업(1988) 후 내일신문, 전라일보를 거쳐 전북도청 홍보기획과에서 근무한 뒤 현재 전라일보 편집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원광대 민중동문회장,

원광대 열린총동문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총동문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5월 원광대 통합총동문회 출범에도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광언론인상을 함께 수상하는 이호준 부장은 2008년 사학과를 졸업한 뒤 중부일보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일보 경제부장을 맡고 있으며, 현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7회, 인천경기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2회, 경기언론인클럽 경기언론인상 2회, 제17회 장문하 경기민주언론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교대-왕의지밀 '맞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7일 전주의 대표 한옥형 호텔인 왕의지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박병춘 총장과 손의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왕의지밀은 호텔 객실 및 세미나 홀 이용 시 가격을 우대하고, 전주교대는 전통음악, 전통미술, 전통공예 등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교육할 수 있다.

(유)제이휴비엔비 왕의지밀 손의준 대표이사는 "우리 호텔은 외관만 한옥인 것과 다르게 내부도 전통문화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전주교대에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전주교육대학교는 작지만 강한 대학이라는 자부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왕의지밀과 우리 대학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자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왕의지밀은 전주의 대표적인 한옥 호텔로 2층 구조의 11개 한옥동으로 면적은 약 6,000평 규모다. 세미나와 웨딩을 위한 연회장과 한식 레스토랑 및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장은성 기자

2024 중등교사 임용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도교육청, 공립 577명 · 사립 573명... 내년 1월 제2차시험

전북도교육청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학년도 전북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 합격자(공립 577명, 사립 573명)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1차시험에서 공립은 402명(일반 367명, 장애 35명) 선발에 총 577명(일반 570명, 장애 7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선발인원의 1.5배수로 뽑았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

또 사립은 153명(34명인 24과목) 선발에 총 573명이 합격했다.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사립 단독지원자가 우선이다. 공·사립 동시지원이 가능한 2개 과목은 선발인원 대비 합격자수가 미달인 경우 공·사립 동시지원자(공립 합격자 제외) 중 미달된 수만큼 성적이 높

은 순으로 결정했으며,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내년 1월 11일까지 나이스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cruit.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다. 사립학교 합격자는 이후 진행되는 제2차 시험일정 등을 해당 학교법인 자체 시험 계획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차시험 공립 합격자는 오는 28일과 내년 1월 2일 2일간 관련서류 등을 전북교육청(창조나래 2층 4회의실)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 방문제출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위임장) 및 비대면(등기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제2차시험은 내년 1월 17일 실기평가, 1월 23일 수업실연, 1월 24일 심층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 8일 도교육청 홈페이지(www.jte.go.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왕신여중 학생 대상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7일 왕신여자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학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품은 대학·중·고교연계 인재육성사업에 참여 중인 왕신여중 10명의 재학생을 포함한 전교생 33명이 전주교대를 찾았다.

왕신여자중학교 학생과 선생님들은 전주교대의 국립대학육성사업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학정보 동영상을 시청했다. 또 미래교육센터 가상현실(VR)체험, 캠퍼스 투어, 학생식당 체험 등 진로 탐색에 대한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